

재택가족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Economic Contributions to Regional Economy of Home-based Family Businesses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박사과정 김현정*

부교수 정순희

조교수 여윤경**

Dep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

Doctoral Candidate : Kim, Hyun-Jung

Associate Professor : Joung, Soon-Hee

Assistant Professor : Yuh, Yoon-Kyung

<Abstract>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economic contributions to regional economy of home-based family businesses. Results showed that home-based family businesses create additional employments within the region, contribute to taxation of the regional economy, and improve regional financing. In addition, home-based family businesses do contribute to regional economy through consuming goods and services within the region and providing goods and services to the region. Through analyzing economic contributions to regional economy of home-based family businesses, it can be suggested that strong support for the home-based family businesses is needed for growth of the regional economy.

△주요어(Key Words) : 재택가족기업(home-based family businesses), 지역경제(regional economy), 경제적 기여도(economic contributions), 지역금융(regional financing)

1. 연구의 배경

최근 정보통신의 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높은 소득 창출에 대한 욕구 및 가계재정에 대한 안정 추구, 교통난에 따른 출퇴근 시간의 절약, 자유롭고 융통성 있는 시간관리에 대한 욕구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한 방식으로 재택노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재택노동은 효율적 노동 분담과 탄력적 시간활용을 통해 시장소득창출과 가정생활영역을 공유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일반적 노동형태인 출퇴근노동의 효과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재택노동의 형태는 크게 자영재택업의 형태를 띠는 재택가족기업과 고용재택근무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도 재택가족기업은 타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업무처리만 가정에서 행하는 고용재택근무에 비해, 실업이나 조기 은퇴 등으로 인해 소득원이 없는 가족에게 새로운 소득창출 통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좋은 기제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문숙재, 김지희, 1997).

재택가족기업은 가계 내적, 외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재택가족기업의 지역경제활성화 기능

* 주저자 : 김현정 (E-mail : silvikim@hanmail.net)

** 교신저자 : 여윤경 (E-mail : yuhyk@ewha.ac.kr)

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란 첫째, 지역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의미, 둘째 인구이동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이 그 지역 내에 가능한 정주할 수 있도록 정주기반을 확충시키는 의미, 셋째, 지역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다양화함으로써 주민의 고용기회를 창출 내지 제고시킨다는 의미 등을 내포한다(최유성, 이현수, 1997).

재택가족기업은 지역사회를 그 존립기반으로 하여 거래 및 고용, 판매 등의 경영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기반이 된다. 또한 재택가족기업 운영자 및 종사자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영리적인 동기와 애항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기반형성에 큰 관심을 갖게 된다. 따라서 재택가족기업은 지역사회에 대한 이러한 기여의 합성결과로서 그 지역사회를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더욱 건전하게 만들며, 이를 통해 지역간 경제적 격차의 지양을 유발하며,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사회적 갈등의 완화 및 지방재정기반을 강화시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재택가족기업 운영을 통한 고용창출은 그 지역의 인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고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고용창출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은 조세감면이나 금융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공장이나 기업을 지역사회 내로 이전하도록 하는 정책이다(박양호 외, 2001; 양지청, 2001). 그러나 이는 지역사회에 연고가 없는 대기업이 인센티브만을 목적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아 간부급 직원이나 기술자 등 주요 직책의 경우는 외부지역의 인력이 유입되며, 지역사회 주민은 단순노동직 등의 고용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주민들의 정주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의 사회적 안정을 확고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며, 이는 재택가족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Rowe, Haynes & Stafford, 1999; 최유성, 이현수, 1997).

또한 우리나라의 지역 간 격차는 소득, 인력, 재정 등 여러 면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금융에 있어서도 지역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지역금융을 견인하는 주된 요소는 바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인데, 그 이유는 금융기관들이 자산운용상의 문제를 안고 있을 경우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금융기관 경영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재택가족기업의 고용 및 소득창출은 지역조세 및 지역금융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재택가족기업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재택가족기업을 제시한 정책은 전무할 뿐만 아니라 재택가족기업과 지역경제를 연관지어 논의한 연구조차 없는 실정이다. 재택가족기업의 경제적 기능에

관한 연구(Rowe, Haynes, & Bentley, 1993)도 지역경제와 분리된 가정경제 기여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그러나 가정의 소득이 증대되면 지역사회의 세수에도 기여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금융 등 지역경제력 상승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에 가정경제와 지역경제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Loker, Owen, & Stafford, 1995)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재택가족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재택가족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을 크게 지역사회 고용창출, 조세 기여, 지역금융기여, 지역사회의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 및 제공 기능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나아가 지역사회 고용창출, 조세지출, 지역금융 이용, 지역사회의 재화와 서비스 이용 및 제공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도출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지역사회 활성화 전략을 모색할 것이다. 재택가족기업의 경제적 기능을 거시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본 연구는 그동안 간과되어 온 재택가족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을 고찰하는 최초의 연구로서 의의가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는 정책입안자들에게도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 연구의 고찰

1. 재택가족기업의 개념

재택가족기업은 가족기업과 재택노동의 복합어이므로 이 두 가지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경영학 분야에서 가족기업이란 가족구성원에 의해 기업이 지배, 경영, 분배되는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기업으로 정의된다(박기동, 1982; 박용득, 1987). 가정학 분야에서 가족기업에 대한 정의는 김지희(1999)에 의해 최초로 이루어졌는데, 김지희는 기업의 51% 이상을 단일가족이 소유하고,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의 가족구성원이 사업의 경영 및 관리활동에 참여하며, 다음 세대의 가족구성원에게 기업의 소유권과 리더십이 계승될 것으로 예견되는 기업 및 조직체를 가족기업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재택노동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가정 내에서 또는 가정을 근거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노동"이라고 한 Pratt(1987)의 정의이다. 재택가족기업은 가족기업의 하위영역에 속하는 특수 가족기업의 한 형태로, 가족기업과 재택노동의 개념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개념이다. 따라서 가족기업 및 재택노동의 정의를 고찰한 바를 기초로 재택가족기업의 개념을 정의하면, 재택가족기업은 주거지 또는 주거지를 기반으로 가족원에 의해서 소유, 경영되며, 소유권이 가족원에게 승계될 것으로 예견되는 기업이다.

2. 재택가족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재택가족기업의 소득창출력은 가계의 경제적 복지수준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복지수

준 향상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택가족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연구(Loker, Owen & Stafford, 1995; Rowe, Haynes & Stafford, 1999)에 의하면, 재택가족기업은 첫째 가정 소득의 증대 및 가계재정의 안정으로 인한 지역조세 및 지역금융에의 기여, 둘째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기업의 창업 및 운영을 통한 고용인력 창출효과와, 지역사회에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택가족기업의 지역 경제적 기능에 관한 연구는 Locker, Owen, 그리고 Stafford(1995)의 연구와 Rowe, Haynes, Stafford(1999)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 이들의 연구도 재택가족기업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었을 뿐 실증분석까지 발전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재택가족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중소기업과 지역경제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중소기업의 창업과 생존이 지역사회에 고용을 창출하며, 이로 인해 인구의 유입을 가져오고, 소득을 창출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기여 기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Mayo & Flynn, 1989; Brown, Hamilton, & Medoff, 1990; Steinmetz & Wright, 1989). 고용창출에 관한 연구로, 미국의 3,124개 지역을 대상으로 노동시장을 382개로 재구분하여 창업과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Reynolds(1994)는 소기업 창업이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한다고 주장하였다. Flora와 Johnson(1991)은 소기업이 도시지역에서나 비도시지역에서 모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형태이며,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고용을 창출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소기업 경영에 있어 지역간 차이를 살펴본 Miller(1991)는 시골지역에서 대기업보다는 소기업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생존율이 높음을 밝힘으로써 소기업 창업은 도시지역보다는 시골지역에서 더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Loker, Owen, 그리고 Stafford(1995)는 재택가족기업을 통해 지역 내 새로운 직업이 창출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낙후지역의 주민들이 취업기회를 얻기 위해 도시로 몰리지 않고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으며, 특히 여성을 비롯하여 사회적으로 취업기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재택가족기업의 운영을 통해 가정 내의 소득이 증대되며, 이는 가정이 지역사회에 내는 세금의 증대 및 지역금융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 하였다. 또한 주거지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에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게 되는 지역경기활성화 기능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승수효과¹⁾까지 고려한

다면 재택가족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결코 간과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재택가족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조세기여에 관한 연구로는 지역 재정과 지역 내 산업구조와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이 있다. 배인명과 양기용(1995)은 지역 산업이 재정수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국세에는 제조업, 전기가스업, 서비스업이 증대효과를 가져온 반면, 지방세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건설업 등이 증대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자치단체들이 재정수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산업들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또한 지역산업 구조 변화의 지방재정 효과를 분석한 차미숙(1998)은 주요 지방세입원이 제조업에서 점차 서비스업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산업부문별 지방세입 기여효과에서는 서비스 부문의 고용성장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지역금융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전국을 행정구역별로 구획한 후, 지역별 금융기관의 수나 금융기관의 예금액과 대출액 등을 비교한 연구들(구재운, 1996; 박원석, 1998)이 있을 뿐 지역 내 산업구조나 소기업 창업 등이 지역금융에 기여하는 바를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재택가족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재택가족기업의 고용창출 실태는 어떠하며, 고용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2] 재택가족기업의 지역조세 기여 실태는 어떠하며, 조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3] 재택가족기업의 지역금융 기여 실태는 어떠하며, 지역금융기관 이용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4] 재택가족기업의 지역사회 점포 이용여부 및 재화 및 서비스 제공 범위는 어느 정도이며, 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무엇인가?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에 제과점이 개업하게 되면 빵을 만들기 위해 밀가루 등을 소비하게 되는데 이는 바로 밀가루공장의 소득으로 이어진다. 또한 밀가루 공장은 밀가루 포장지를 더 구입하게 됨으로써 포장지 제조업자의 소득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을 경제적 파급효과 또는 경제적 승수효과라 한다.

1) 경제적 승수효과란 한 경제 주체의 지출이나 소비는 다른 경제 주체의 소득이 되며,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증가하게 되고 소득증가에 따른 저축의 증가가 투자의 확대로 이어지면 또 다른 소득의 증가로 나타나며 이에 따른 소비의 증가는 소득의

2. 자료수집 및 절차

본 연구는 재택가족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미국의 재택근무가계에 대한 NSS(Nine State Study, 9개주 가족기업조사)에서 사용된 변수들과 가족기업 연구인 NFBS(National Family Business Survey, 전국가족기업조사)에서 사용된 변수들을 근거로, 예비설문지를 구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12가계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사와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거쳐 본 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자료 수집은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에 소재한 재택가족기업으로 한정하였다. 재택가족기업의 정의에 합치되는 조사대상을 찾기 위해 리서치 전문회사에 의뢰하여 도움을 받았다. 조사를 의뢰한 리서치회사²⁾는 웹서베이시스템(Web Survey System)을 갖추고 있어, 17만명의 패널회원의 성별, 연령, 거주지, 결혼여부, 직업, 가구특성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정보 중 기본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서울, 경기·인천지역 거주자 중 자영업자를 선택한 후,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 재택가족기업의 조작적 정의에 합치되는지를 확인하고, 재택가족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하였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는 표본 중 본 연구의 조사대상에 해당되는 자가 너무 적어 두 번째 방법을 병행하였다. 두 번째 방법은 지역을 구·군별로 분할한 후³⁾ 각 지역별로 조사원을 파견하여, 담당 조사원이 해당 지역 내에서 재택가족기업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즉 조사원이 각 지역의 재택가족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재택가족기업에 해당하는가를 확인한 후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의 방법을 병행하여 2003년 9월 1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으며, 모든 조사는 면접 타계식으로 진행되었다. 총 43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였으나 면접과정 중 중도탈락한 대상자와 부실 기재된 대상자를 제외한 193부가 최종 분석자료로 이용되었다.

3. 변수의 측정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재택가족기업의 지역경제적 기여를 고용창출, 조세납부, 지역금융 활성화,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고 지역사회에 제공함으로써 기대되는 경기활성화 효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 2) 인터넷에서 리서치 전문대행업체를 검색한 후, 각각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업체규모 및 리서치 실적, 그리고 리서치 방식에 대해 검토하여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수행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업체를 약 20개 정도로 간추려 선정하였다. 그 후, 선정된 업체에 모두 전화를 걸어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설문조사 대행을 수락한 업체 중 금전비용 및 조사기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선택하였다.
- 3) 서울의 경우는 각 구(區)별로, 인천의 경우 용진군과 강화군의 도서지역을 제외한 구(區)와, 경기지역의 경우 구나 군을 제외한 시(市)단위 별로 1-2인의 면접자를 배정하였다.

(1) 지역사회 고용창출

재택가족기업의 고용창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택가족기업에 참여하는 가족종사자의 수와 비가족종사자의 수를 측정하였으며, 재택가족기업의 산업유형별로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종사자, 친척, 비가족, 총 종사자수를 비교하였다. 재택가족기업의 고용창출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경영자 본인을 제외한 다른 종사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지역사회 조세납부

재택가족기업의 조세납부는 인구, 건물, 토지, 자동차 등이 지방세의 주요세입원이 된다는 지방세입 과세원리(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4)에 근거하여 소득세, 재산세, 토지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납부액을 측정하여 재택가족기업이 지역사회의 세수에 기여하는 정도를 살펴보았다. 재택가족기업의 지역조세납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재택가족기업을 경영하는 가계가 연간 지출하는 지방세합계액을 종속변수로 놓고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지역사회 금융활성화

재택가족기업의 지역금융 활성화는 저축 시 이용하는 금융기관과 지역사회 내의 지점 이용여부를 조사하고, 예금액도 측정하였다. 대출의 경우도 어느 금융기관의 어느 지점을 이용하는지와 총 대출액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지역금융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거주지역과 동일한 구/군 이내의 지역사회에 위치한 금융기관의 예금액과 대출액을 종속변수로 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지역사회 경기활성화

재택가족기업의 경기활성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재택가족기업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지역범위와 재택가족기업의 지역사회 재화와 서비스 소비수준을 측정하였다. 로지스틱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기업경영을 위한 자재 및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에 위치한 업체를 이용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재택가족기업의 재화 및 서비스의 주 제공지역이 근린 지역사회인지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구입 및 판매 모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지에 대한 분석도 실시하였다.

중회귀분석에 앞서 연구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모수추정치에 대한 허용도(tolerance)가 모두 0.1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조건지표(condition index)의 모든 값도 100이하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분석은 SPSS WIN(ver. 11.0)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연구대상 재택가족기업의 특성

연구대상 재택가족기업의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재택가족기업의 거주지역 분포는 서울에 53.9%, 경기지역에 31.6%, 인천지역에 14.5%로 나타났으며,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동일한 지역에 거주한 기간은 5년 미만이 29.0%, 5년 이상 10년 미만이 31.6%,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26.9%, 그리고 20년 이상도 13.5%나 되었다. 이는 재택가족기업은 높은 유동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Heck, Walker 그리고 Furry(1995)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표 1> 재택가족기업의 특성

변 수	빈도	백분율(%)	
거주지역	서울	104	53.9
	경기	61	31.6
	인천	28	14.5
거주기간	5년 미만	56	29.0
	5년 - 10년	59	30.6
	10년 - 20년	52	26.9
	20년 이상	26	13.5
재택사업장 선정 경위	주거지에서 사업장 개업	86	44.6
	사업장으로 주거지 이전	34	17.6
	재택사업을 위해 이주	69	35.8
	기타	4	2.1
주택유형	단독주택	52	26.9
	아파트	12	6.2
	주상복합건물	94	48.7
	빌라/연립/기타	35	18.1
주택소유형태	자가	76	39.4
	전세	71	36.8
	월세	46	23.8
사업장소유형태	자가	70	36.3
	전세	44	22.8
	월세	79	40.9
재택사업장 유형	주거지와 사업장이 동일	97	50.3
	동일 건물 내 별도 거주	96	49.7
사업장규모			
주거지와 사업장 동일시	20평 미만	16	16.5
	20평 이상 30평 미만	39	40.2
	30평 이상 40평 미만	24	24.7
	40평 이상	18	18.6
	평균(표준편차)	29.8평(14.8)	
동일 건물 내 별도 거주 시 주거지 규모	20평 미만	26	27.1
	20평 이상 30평 미만	39	40.6
	30평 이상 40평 미만	26	27.1
	40평 이상	5	5.2
	평균(표준편차)	24.2평(8.4)	
동일 건물 내 별도 거주 시 사업장 규모	10평 미만	24	25.0
	10평 이상 20평 미만	45	46.9
	20평 이상 30평 미만	16	16.7
사업장 규모	30평 이상	11	11.5
	평균(표준편차)	15.7평(11.4)	

사업장이 주거지와 동일한 공간 또는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게 된 경위는 원래 살던 주거지에서 사업장을 개업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44.6%), 주거와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이주를 한 경우가 35.8%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원래 사업을 하던 사업장에 주거지를 이전한 경우는 1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와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찾아 이주할 경우 주상복합건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의 유형은 단독주택(26.9%)이나 아파트(6.2%)에 거주하는 비율보다도 주상복합건물에 거주하는 비율(48.7%)이 훨씬 더 높았다. 주거지와 사업장이 동일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50.3%)와 주거지와 사업장이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고는 있으나, 별도의 장소로 독립되어 있는 경우(49.7%)가 거의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주택소유형태는 자가 보유비율이 39.4%, 전세가 36.8%, 월세가 23.8%로 나타났으며, 사업장소유형태는 자가가 36.3%, 전세가 22.8%, 월세가 40.9%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는 주거지와 사업장이 동일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평균 29.8평이었으며, 동일 건물 내 별도 거주하는 경우는 평균 24.2평, 사업장규모는 15.7평으로 나타났다.

재택가족기업의 기업경영 특성은 <표 2>에 나타나 있다. 재택가족기업의 소유주 성별은 남성 57.5%, 여성 42.5%로 나타났다. 재택가족기업의 기업유형은 도·소매업이 55.4%로 가장 높았으며, 개인서비스업과 음식점업이 17.6%와 12.4%로 그 뒤를 이었다. 사업을 소유하게 된 배경은 부모세대로부터 사업을 승계한 경우는 7.3%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창업(73.1%)이나 기존의 기업을 매입하는(18.7%) 방식을 통해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시작 당시의 창업비용이나 기업매입 비용을 생산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03년 9월 가치로 환산한 초기투자비용은 평균 4,456만원으로,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사이가 전체 응답자의 3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사업지속기간을 살펴본 결과, 평균 8.2년으로 나타났으며, 4-7년이 가장 높은 비율(35.2%)을 보임으로서, 우리나라가 IMF 경제적 위기를 겪을 무렵인 1998년을 전후하여 사업을 시작한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사업체에 종사하는 총 직원수는 평균 2명으로 매우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었고, 재택가족기업에 참여하는 노동참여자 구성유형을 분류한 결과, 본인+가족·친척의 유형이 44.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본인 혼자(33.7%), 본인+타인(17.1%), 본인+가족·친척+타인(4.7%)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택가족기업 종사자의 노동시간을 분석한 결과, 거의 절반정도(49.2%)가 일주일에 7일 모두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일 이내로 일하는 경우는 8.2%에 불과했다. 또한 주당 노동시간도 평균 73시간으로 나타났다. 81시간 노동하는 비율이 42.7%나 되었으며, 100시간 이상도 조사대상자의 11.1%(22명)나 되었다. 재택가족기업 경영을 위한 마케팅전략으로는 구전이 53.9%, 상호용 전화번호부 이용이 17.6%, 지역정보지 이용(7.3%), 전단지 배부(7.3%) 등으로 나타났다.

<표 2> 재택가족기업의 기업경영 특성

변수	빈도	백분율	
소유주 성별	남성소유주	111	57.5
	여성소유주	82	42.5
재택가족기업 종사 산업유형	도·소매업	107	55.4
	개인서비스업	34	17.6
	음식점업	24	12.4
	교육서비스업	19	9.8
	부동산업	6	3.1
	제조업	3	1.6
사업소유배경	창업	141	73.1
	기존의 기업 매입	36	18.7
	승계	14	7.3
	기타	2	1.0
초기투자비용 (2003년까지로 환산)	2,000만원 미만	48	24.1
	2,000 - 4,000만원	60	30.2
	4,000 - 6,000만원	31	15.6
	6,000 - 8,000만원	23	11.6
	8,000만원 이상	31	15.6
사업지속년수	평균(표준편차)	4,456만원(4,080.0)	
	3년 이내	52	26.9
	4-7년 이내	68	35.2
	8-15년 이내	44	22.8
	16년 이상	29	15.0
평균(표준편차)		8.2(7.2)	
	직계가족(본인포함) 1인	99	51.3
	2인	88	45.6
	3인 이상	6	3.1
	친족	188	97.4
비가족	1명	1	0.5
	2인	4	2.1
	0인	151	78.2
	1인	24	12.4
총직원수(본인포함)	2인	11	5.7
	3인 이상	7	3.6
	1인	65	33.7
	2인	97	50.3
노동참여 가족유형	3인	18	9.3
	4인 이상	13	6.7
	평균(표준편차)	2.0명(1.6)	
	본인혼자	65	33.7
	본인+가족·친족	86	44.6
주당노동일수	본인+비가족원	33	17.1
	본인+가족·친족+비가	9	4.7
	5일 이내	16	8.2
	6일	82	42.5
주당노동시간	7일	95	49.2
	평균(표준편차)	6.3일(1.1)	
	44시간 이내	21	10.9
	45-60시간 이내	44	22.9
	61-80시간 이내	45	23.4
마케팅전략	81시간 이상	82	42.7
	평균(표준편차)	73.0시간(24.2)	
	구전	104	53.9
	상호용 전화번호부 이용	34	17.6
	지역정보지 이용	14	7.3
	우편물발송 또는 전단지배부	14	7.3
	카탈로그/사업용잡지 이용	12	6.2
	일간신문 이용	10	5.2
기타	5	2.5	

<표 3>은 재택가족기업의 재정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합한 총자산은 평균 1억4,396만8천원, 총부채는 1,579만5천원으로 순자산은 1억2,688만4천원이었다. 또한 연간매출액은 평균 5,881만9천원이었으며 지출을 제외한 연간순이익은 2,818만원으로 나타났다. 재택가족기업 소유주의 성별에 따라서 연간매출액과 지출액수는 차이가 있었는데, 남성 소유주인 재택가족기업의 연간매출액과 지출이 여성 소유주인 경우보다 더 많았다.

<표 3> 재택가족기업의 재정적 특성 (단위:만원)

변수	전체				남성 소유주 (n=111)	여성 소유주 (n=82)	t 값	
	25%	50%	75%	Mean (S.D.)				
자산	금융 자산	1,000.0	2,000	3,900.0	2,700.5 (2,708.3)	2,849.2 (2,284.9)	2,509.8 (3,187.0)	0.610
	실물 자산	6,125.0	13,000.0	24,500.0	17,320.0 (16,687.6)	17,129.6 (16,212.1)	17,543.5 (17,406.8)	-0.122
총 자산	3,000.0	8,750.0	20,375.0	14,396.8 (17,000.2)	14,014.1 (15,699.5)	14,878.2 (18,628.2)	-0.292	
총 부 채	0.0	0.0	1,000.0	1,579.5 (4,932.0)	1,888.7 (5,113.7)	1,164.6 (4,676.0)	1.020	
순 자 산	2,450.0	8,000.0	20,000.0	12,688.4 (13,700.3)	12,016.1 (12,411.6)	13,523.4 (15,212.5)	-0.630	
연간매출액	2,500.0	4,000.0	7,000.0	5,881.9 (6,810.0)	7,054.1 (8,334.7)	4,235.1 (3,340.6)	2.833**	
지 출	1,000.0	1,800.0	3,200.0	3,053.8 (4,821.3)	3,860.5 (5,998.1)	1,958.3 (2,019.7)	2.740**	
연간순이익	1,100.0	2,000.0	3,000.0	2,818.0 (3,345.4)	3,155.9 (4,014.2)	2,359.0 (2,062.9)	1.634	

** p<.01

<표 4>는 재택가족기업의 순이익매출액율과 순이익투자액율을 제시하고 있다. 순이익매출액율은 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성과측정에 유용한 재무비율이다(김순미, 홍성희, 2000). 본 연구에서 순이익매출액율은 평균 0.534로 나타났는데, 김순미와 홍성희(2000)의 연구에서 나타난 재택자영업의 0.526이나 비재택자영업의 0.441보다 높았다. 한편, 기업평가에서 수익성 측정도구로 사용되는 순이익총자산률을 응용한 순이익투자액율이 기업 초기에 투자한 가계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영업성과를 올렸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순이익투자액율은 「연간순이익/초기투자비용」으로 측정되는데, 초기투자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 창업 또는 매입당시 비용을 사업시작년도의 생산자 물가지수를 고려하여 2003년 9월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였다. 그 결과, 순이익투자액율은 평균 1.472로 재택가족기업 초기에 투자했던 비용의 약 1.5배의 연간순이익을 내고 있었다.

<표 4> 재택가족기업의 순이익매출액율과 순이익투자액율

변수	측정	Mean	S.D.
순이익매출액율	연간순이익/연간매출액	0.534	0.454
순이익투자액율	연간순이익/초기투자비용 ^a	1.472	4.259

a) 생산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03년 9월 가치로 환산

2. 재택가족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1) 고용창출효과

재택가족기업에 투입되는 노동자수를 통해 재택가족기업의 고용창출효과를 살펴본 결과, 재택가족기업 관련 종사자 수는 평균 2명으로 나타났다. 재택가족기업의 산업 유형별 고용창출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산업을 도소매·제조업, 서비스업, 음식점업으로 유형화한 후,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 친족, 비가족원 그리고 총직원수의 평균을 비교하였다(<표 5>). 산업 유형별로 친족과 비가족원 종사자수는 차이가 없었지만, 직계가족 및 총종사자수에는 차이가 있었다. 도소매, 제조업의 경우 직계가족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종사자 수는 음식점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가족기업의 경영자 본인 이외의 고용창출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6>에 나타나 있다⁴⁾. 재택가족기업 경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은 고용창출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으며, 주거지와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보다는 일치하는 경우가 고용창출에 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업장과 주거지 분리 여부에 따라 직계가족종사자수, 친족 종사자수, 비가족원 종사자수의 평균을 비교하였더니, 친족이나 비가족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직계가족 종사자수는 사업장과 주거지가 일치하는 경우 1.63명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의 1.43명 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주거지와 사업장이 일치하게 되면서, 비동거 친족이나 비가족원을 고용하는 경우보다는 동거하는 직계가족원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더 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산업유형 중에서는 음식점업의 경우가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소득이 높을수록 본인 이외의 다른 종사자를 고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주거지와 사업장이 동일하다는 특성상 재택가족기업은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비록 대규모의 고용을 창출하지는 못하지만, 본인의 취업기회 뿐만 아니라 가족원 및 타인의 취업기회를 창출하고, 특히 지역주민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 재택가족기업의 총종사자 수는 1명, 2명, 3명인 경우가 전체의 93%를 차지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 OLS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인 이외에 고용자가 있는지 여부를 종속변수로 놓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 재택가족기업의 산업유형별 종사자수 (단위 : 명)

	본인 및 직계가족		친족	비가족원	총종사자수	
	Mean(S.D.)	D			Mean(S.D.)	Mean(S.D.)
도소매·제조업 (N=110)	1.65(0.566)	a	0.03(0.212)	0.33(1.527)	2.02(1.729)	a
서비스업 (N=59)	1.25(0.439)	b	0.03(0.260)	0.49(1.331)	1.78(1.365)	a
음식점업 (N=24)	1.58(0.717)	a	0.17(0.565)	0.96(1.268)	2.71(1.233)	b
F값	10.260***		2.328	1.918	2.989*	

* p<.05, *** p<.001

※ D : 던컨 사후검증, 같은 문자간에는 유의한 차이 없음

<표 6> 재택가족기업의 고용창출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B	S.E
경영자성별(남자)		
여자	-.263	.424
경영자연령	.028	.024
교육수준(고졸)		
중졸이하	-.484	.625
전문대졸이상	-.419	.402
거주지역(인천·경기)		
서울	-.660	.373
재택사업장유형(미분리)		
주거지와 사업장 분리	-1.161**	.375
산업유형(도소매·제조업)		
서비스업	.645	.384
음식점업	1.975*	.862
사업소득	.004***	.001
상수		-1.027
-2 log likelihood		192.736***

+ p<.10, * p<.05, ** p<.01, *** p<.001

※ ()속의 변수가 기준집단임

2) 지역사회 조세납부

재택가족기업을 운영하는 가계가 1년간 지출한 항목별 조세액과 조세합계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재택가족기업이 연간 지출하는 세금 총액은 평균 61만7천원으로, 항목별로는 소득세 26만5천원, 재산세 27만2천원, 토지세 14만3천원, 자동차세

25만9천원, 주민세 1만4천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세지출액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는 지역별 조세지출액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가족기업의 연간 총조세지출액을 종속변수로 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표 8>), 경영자의 성별이나 연령, 거주지역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못했으나 가계총자산, 가계총부채, 사업소득이 많을수록 조세총액도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산업유형별로 보면, 도소매, 제조업을 경영하는 경우 조세도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지속연수가 길수록 조세지출액도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재택가족기업 경영으로부터 얻는 사업소득은 조세지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반면, 사업소득을 제외한 사업 외 소득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회귀분석 결과는 재택가족기업의 소득창출이 지역 조세에 기여하고 있음을 추론케 한다.

<표 7> 재택가족기업의 연간 조세지출액 (단위:만원)

	전체(N=193)	서울(N=104)	인천(N=28)	경기(N=61)	F 값
	Mean(S.D.)	Mean(S.D.)	Mean(S.D.)	Mean(S.D.)	
소득세	26.5(54.4)	30.4(61.3)	15.7(13.0)	25.2(53.6)	0.545
재산세	27.2(66.3)	29.5(78.5)	19.2(22.3)	26.7(55.9)	0.162
토지세	14.3(34.6)	21.0(49.7)	10.8(6.9)	7.9(12.2)	1.291
자동차세	25.9(22.6)	26.0(25.5)	34.4(25.7)	22.3(14.4)	1.870
주민세	1.4(2.9)	1.4(2.3)	2.1(5.6)	1.1(1.6)	1.124
세금총액	61.7(97.1)	66.0(113.4)	50.9(48.5)	60.0(83.8)	0.283

<표 8> 재택가족기업의 연간조세지출액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연간조세합계	
		B	β
경영자성별(남자)			
여자		2.550	.013
경영자연령		-0.123	-0.011
거주지역(인천·경기)			
서울		-2.543	-0.013
산업유형(음식점업)			
도소매·제조업		36.524	.187*
서비스업		21.966	.105
사업지속연수		1.565	.117
가계총자산		1.892E-03	.357***
가계총부채		7.804E-03	.336***
사업소득		2.420E-02	.194**
사업외소득		-3.207E-03	-.008
상수			-24.730
F 값			13.417***
R ²			0.426

+ p<.10, * p<.05, ** p<.01, *** p<.001

※ ()속의 변수가 기준집단임

3) 지역금융 활성화

재택가족기업의 지역금융 활성화는 재택가족기업이 어느 정도로 지역사회의 금융기관을 이용하며 이용액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통해 분석되었으며, 이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표 9> 재택가족기업의 금융기관 이용행태 (단위:만원)

구분	항목	N	이용점포		예금액/대출액 Mean(S.D.)		
			지역사회 N(%)	타지역 N(%)			
은행	요구불예금	114	109(96.5)	4(3.5)	1826.3(2246.5)		
	저축성예금	102	99(97.1)	3(2.9)	2611.1(3553.5)		
	대출	53	49(92.5)	4(7.5)	3648.7(6224.6)		
비은행기관	투자기관 (종금,투금,투신)	예금	13	11(84.6)	2(15.4)	1384.6(1480.3)	
		대출	0	-	-	-	
비은행기관	지역 밀착형 기관	상호금융 (농·수·축협)	예금	35	34(97.1)	1(2.9)	1344.6(1831.3)
			대출	9	5(55.6)	4(44.4)	5022.2(5120.2)
		신협· 새마을금고	예금	15	14(93.3)	1(6.7)	2909.3(7614.1)
			대출	10	9(90.0)	1(10.0)	4030.0(4068.6)

재택가족기업의 대부분이 거주하는 구/군 이내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은행을 이용하는 경우 96% 이상이 지역사회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을 이용하고 있었고, 1가구당 예금액이 요구불예금의 경우 1,826만 3천원, 저축성예금의 경우 2,611만 1천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은행기관의 경우 투자기관을 이용하는 경우(13가계) 보다는 농협, 수협, 축협 등의 상호금융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지역밀착형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특히 대출의 경우는 은행기관을 통한 대출액(1,384만 6천원)보다 지역밀착형 기관을 이용한 대출액(상호금융의 경우 5,022만원, 신협·새마을금고의 경우 4,030만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가족기업이 지역 점포에 예치한 예금총액과 대출총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0>에 나타나 있다. 거주지역이 서울인 경우가 인천·경기인 경우에 비해 지역사회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액은 많은 반면, 대출액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유형별로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재택가족기업이 다른 유형에 비해 예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지속연수는 대출에

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계순자산⁵⁾과 사업소득은 예금액과 대출액에 모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표 10> 재택가족기업의 지역사회 금융기관 이용액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 변수	지역사회 점포 예금액		지역사회 점포 대출액	
	B	β	B	β
경영자성별(남자)				
여자	231.833	.022	240.525	.027
경영자연령	25.057	.047	56.640	.122
거주지역(인천·경기)				
서울	1526.089	.156*	-1361.168	-.162*
산업유형(도소매·제조업)				
서비스업	1367.596	.129*	-145.480	-.016
음식점업	-1007.871	-.069	-99.122	-.008
초기투자비용	8.864E-02	.074	3.662E-02	.036
사업지속연수	19.907	.028	-100.765	-.164*
가계순자산	.124	.471***	6.757E-02	.300***
사업소득(ln)	823.751	.133'	700.422	.132'
상 수	-6345.379		-4813.362	
F 값	8.579***		3.437**	
R ²	0.304		0.149	

+ p<.10, * p<.05, ** p<.01, *** p<.001

※ ()속의 변수가 기준집단임

4) 지역사회 내 재화와 서비스 소비 및 제공

재택가족기업의 기업운영을 위한 자재와 재료 구입 장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표 11), 조사대상자의 52.8%인 102가계가 사업장이 위치해 있는 지역 내의 재료상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택가족기업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주 판매지역이나 이용지역 또한 사업장으로부터 도보 30분 이내인 경우가 35.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재택가족기업이 재료 구입을 지역사회 소속 사업장을 이용하는지의 여부와 재택가족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제공지역이 3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모두 충

족시키는지 여부에 대하여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12>에 나타나 있다. 재택가족기업이 경영 자재 및 재료를 지역사회 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서 구입하는지 여부에는 주거지와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부적인 영향력을, 서비스업의 경우가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주 판매지역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지의 여부에는 서울지역과 음식점업이 정적인 영향력을 보였다. 즉, 재택사업장이 주거지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보다는 일치하는 경우가 지역사회에 소속해 있는 업체로부터 자재 및 재료를 구입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산업유형 중 도소매·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재택가족기업이 지역사회 소속 업체를 이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이나 경기지역보다 서울지역에 재택사업장이 위치한 경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유형 중에는 도소매·제조업보다는 음식점업의 경우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판매를 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재료 구입 및 판매지역 모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주거지와 사업장이 일치하는 경우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보다 구입 및 판매에 있어 지역사회를 이용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산업유형 중에서는 도소매,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과 음식점업의 경우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경영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더 높았다.

<표 11> 재택가족기업의 지역사회기반 재화와 서비스 이용 및 제공실태

변 수		빈도	백분율
기업경영을 위한	사업장 소속지역 내의 재료상에서 배달	68	35.2
자재 및 재료구입처	사업장 소속지역 내의 재료상 방문 구입	34	17.6
	타지역의 재료상에서 배달	45	23.3
	타지역의 재료상 방문구입	31	16.1
	인터넷 주문	5	2.6
	기타	10	5.2
주 판매/이용 지역	사업장으로부터 도보 30분 이내	69	35.8
	사업장으로부터 차로 30분 이내	30	15.5
	사업장으로부터 차로 30-1시간	23	11.9
	사업장으로부터 차로 1-2시간	14	7.3
	거리에 관계없음	57	29.5

5) 가계총자산의 경우에는 예금액이 현금성자산이나 투자자산으로 작용하며, 가계총부채의 경우는 대출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총 자산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표 12> 재택가족기업의 구입 및 판매의 지역사회 기반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주관매지역이 지역사회기반 여부		구입 및 판매 모두 지역사회기반 여부	
	B	S.E	B	S.E	B	S.E
경영자성별(남자)						
여자	.021	.359	-.309	.351	-.371	.394
경영자연령	.029	.021	-.013	.020	.015	.023
교육수준(고졸)						
중졸이하	-.254	.553	.566	.537	.259	.626
전문대졸이상	-.503	.373	.692	.361	.294	.403
거주지역(인천·경기)						
서울	-.318	.328	.644*	.325	.630	.376
재택사업장선정경위(이주)						
주거지에서 사업장개업	.582	.484	.119	.463	.643	.506
사업장으로 주거지이전	-.249	.352	.458	.349	.009	.403
재택사업장유형(미분리)						
주거지와 사업장 분리	-.635*	.325	.284	.317	-.721*	.371
산업유형(도소매·제조업)						
서비스업	1.290***	.377	.574	.354	.936*	.405
음식점업	.649	.510	1.301*	.510	1.246*	.522
사업소득	.000	.000	.000	.000	.000	.000
상 수	1.190		0.414		-2.300	
-2 log likelihood	240.032***		247.103***		202.724***	

* p<.10, * p<.05, ** p<.01, *** p<.001

※ ()속의 변수가 기준집단임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재택가족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초점으로 하여 출발하였다. 재택가족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는 재택가족기업의 고용창출기능, 지역조세기여기능, 지역금융기여 및 지역경기활성화 기능으로 구분하여 분석되었고, 각각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택가족기업은 지역사회 내에서 고용을 창출하며, 그로 인한 가정 내 소득 창출 및 증대가 지역사회 조세에 기여하며, 가계재정상태의 호전은 지역금융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지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에서 기업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게 되면서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 외 고용창출여부, 연간조세지출액, 지역금융기관 이용액, 지역경기 활성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각각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은 지역경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재택가족기업 경영을 통한 사업소득이 많을수록 고용창출 효과도 크며, 조세 및 금융기여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

업유형별로 살펴보면, 고용창출에는 음식점업, 조세기여에는 도소매·제조업, 지역금융에는 서비스업의 기여도가 크며, 지역경기 활성화에는 도소매·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과 음식점업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정책 입안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느 산업을 지원·육성해야 하는지 지역경제 구성요소 별로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재택가족기업을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서 재택가족기업의 지원을 정책입안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 기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들이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재원 조달상의 문제와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계획을 입안한다는 데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양지청, 2001). 즉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계획을 중앙 정부에서 입안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의 세금이 대폭 투입되고 있으나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재택가족기업은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아는 거주민이 지역 상황에 맞는 사업종목을 선택하고 경영하기 때문에 재택가족기업의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인력창출, 조세, 금융 등에 대한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금융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조성된 자금을 지역 내로의 환원을 촉진시키는 방안으로 금융기관의 자금이 지역 외로 역출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제기되며, 재택가족기업이 지역금융에 기여하는 정도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택가족기업 운영자가 해당지역 소재 금융기관이나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도의 마련을 통해 재택가족기업도 활성화시키고 지역금융도 활성화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재택가족기업을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기존의 정부주도적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는 큰 차별성을 갖는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체는 지역기업과 지역주민이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지역기업과 지역주민의 참여 없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정책은 계획으로 끝나거나 그 성과가 미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기업이나 지역주민 스스로 자신의 경제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들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홍기용, 1998). 즉, 가정경제상태의 상승이 지역경제에도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에까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재택가족기업은 기존의 정부주도형이 아닌 지역주민 스스로 소자본을 투자하여 취업의 기회를 찾아 가정경제에 기여하고 더불어 지역경제에까지 기여한다는 면에서 정부주도적 지역경제 활성화방안보다 더 실질적

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수집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일관된 표본선정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결과의 일반화는 물론이고, 지역간 재택가족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차이를 분석을 통해 지역특성에 따른 재택가족기업의 활성화 방안 모색도 가능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재택가족기업에 대한 전국적 차원의 조사는 지역경제에의 기여도는 물론,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재택가족기업의 국민경제기여도 추정도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둘째, 재택가족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측정할 지표나 도구를 개발하지 못하고 고용창출, 조세기여, 지역금융, 지역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그 기능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재택가족기업이 지역경제 구성 요소 중 어느 부문에 더 기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수 없었다. 지역 경제력을 측정할 지표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본 연구 뿐 아니라 지역경제 관련 선행연구들의 공통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경제력 측정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 접수 일 : 2004년 09년 15월
- 심사 일 : 2004년 10년 07일
- 심사완료일 : 2004년 12월 10일

【참 고 문 헌】

구재운(1996). 금융과 성장 : 지역간 연구. **지역연구**, 12(1).

김순미·홍성희(2000). 재택 가족기업과 비재택 가족기업의 재정 상태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제 38권 10호, 181-197.

김지희(1999). 가족기업가정에 관한 연구 -이론 및 실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미간행.

문숙재·김지희(1997). 가족자원활용을 위한 재택사업(Home-Based Business)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창간호, 43-55.

박기동(1982). 한국가족기업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11, 39-59.

박양호·김창현·김인중·민승규·전병유 외(2001). **지방경제 실태와 활성화 방안**. 국토연구원.

박용득(1987). **한국가족기업의 조직효율성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박원석(1998). **지역금융 활성화와 지역경제, 전환기의 지역경제정책**. 서울:삼성경제연구소.

배인명·양기용(1995). 지역경제의 지방재정수입에 대한 효과분석 : 시정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정보**, 29(3), 771-783.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4). 서울시 지방재정예측과 배분에 관한 연구.

양지청(2001).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실태와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차미숙(1998). 지역산업구조 변화의 지방재정효과 분석. **지방재정학보**, 3(1), 171-186.

최유성·이헌수(1997).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한국행정연구원.

홍기용(1998).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미국 지방정부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0(1), 65-79.

Brown, C., Hamilton, J., & Medoff, J.(1990). Interpreting panel data on job tenure. *Journal of Labor Economics*, 10, 219-257.

Flora, J. L., & Johnson, T. G.(1991). Small business. In C. B. Flora & J. A. Christenson(Eds.). *Rural Policies for the 1990s*. Boulder. CO:Westview.

Heck, R. K. Z., Walker, R. & Furry, M. M.(1995). The Workers at Work at Home. In Owen, A. J., Heck, R. K. Z. & Rowe, B. R.(eds.). *Home-Based Employment and Family Life*. Westport. CT : Greenwood Publishing, 41-74.

Loker, S., Owen, A. J. & Stafford K.(1995). The Community Connection. In Owen, A. J., Heck, R. K. Z. & Rowe, B. R.(eds.). *Home-Based Employment and Family Life*. Westport. CT : Greenwood Publishing. 135-166.

Mayo, J. W. & Flynn, J. E.(1989). First entry and Exit : Casualty tests and economic base linkage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29, 645-662.

Miller, J. P.(1991). New rural businesses show good survival and growth rates. *Rural Development Perspective*, June/September, 25-29.

Pratt, J. H.(1993). *Myth and Realities of Working at Home : Characteristics of Home-Based Business Owner and Telecommuters*. Washington, D.C. :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Reynolds, P.(1994). Autonomus Firm Dynamics and Economic Growth in the United States, 1986-1990. *Regional Studies*, 28(4), 429-442.

Rowe, B. R., Haynes, G. W., & Bentley, M. T.(1993). Economic Outcomes in Family-Owned Home-Based Business. *Family Business Review*, 6(4), 383-396.

Rowe, B. R., Haynes, G. W., & Stafford, K.(1999). The Contribution of Home-Based Business Income to Rural and Urban Economies.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13(1), 66-77.

Steinmetz, G. & Wright, E. O.(1989). The fall and rise of the petty bourgeoisie: Changing patterns of self-employment in the postwar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73-1018.